

보도자료

유해한 콘텐츠를 접한 경험 때문에 소수민족계 시청취자의 절반이 방송을 기피

많은 소수민족계 시민들이 불쾌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접한 경험 때문에 공영 방송을 기피한다는 사실이 방송위원회의 새로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BSA 조사에 따르면 마오리(79%), 퍼시픽계(85%), 아시안(76%), 무슬림(75%)의 4분의 3 이상이 뉴질랜드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견해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느낀다.

마오리, 퍼시픽계, 무슬림의 약 3분의 1 과 아시안의 21%가 지난 6개월 사이에 공개적으로 공유된 이러한 견해를 읽거나 보거나 들었다. 이러한 예로는 갈등 조장, 고정 관념 강화, 잘못된 정보, 편파적 보도, 그리고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농담이나 공격 등이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잘못된 정보와 부적절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 TV 나 라디오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마오리 55%, 퍼시픽계 50%, 아시안 52%, 무슬림 52%).

그러나 불쾌한(그리고 가장 해로운) 자료를 보는 곳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이고, 지상파 TV와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그 다음이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소수만이 뉴질랜드에서 표현의 자유와 잠재적 피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 반면, 대다수는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성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형태의 표현이 소수민족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방송 기준 제도가 소수민족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BSA 조사*에서 밝혀졌다.

기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각 소수민족계의 상당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마오리 56%, 퍼시픽계 60%, 아시안 45%, 무슬림 41%).
- 소셜 미디어는 불쾌하고 유해한 콘텐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출처로 여겨지지만 이것을 주류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것은 그 콘텐츠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토크백 라디오와 소셜 미디어의 '상대적 익명성'은 더 극단적인 견해가 표명되도록 조장하는 배경이 된다.
- 심층조사 집단은 많은 사례가 사소해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쌓이다 보면 결국 훨씬 더 해로운 그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조사 참가자들은 나쁜 행동/고정관념의 정상화, 좌절감, 안전하지 않다거나 판단받는다거나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뿐 아니라 자신감, 정신건강 및 자존감의 저하와 같은 광범위한 악영향을 지적한다.

- 그러나 "원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끄거나 듣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견해도 각 소수민족계마다 상당수 존재한다.
- 불쾌한 견해를 경험했을 때 가장 흔히 하는 대응은 가족/친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온라인에 의견을 남기거나 국가기관(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인권위원회이고, 그 다음은 BSA)에 민원을 제기하는 대응을 많이 한다.
- 불만을 제기하는 주요 동기는 폭력이나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개인적 영향이다.

BSA 최고경영자 Stacey Wood 는 많은 플랫폼의 콘텐츠로 인해 분노, 상처, 되짜맞는 느낌이 커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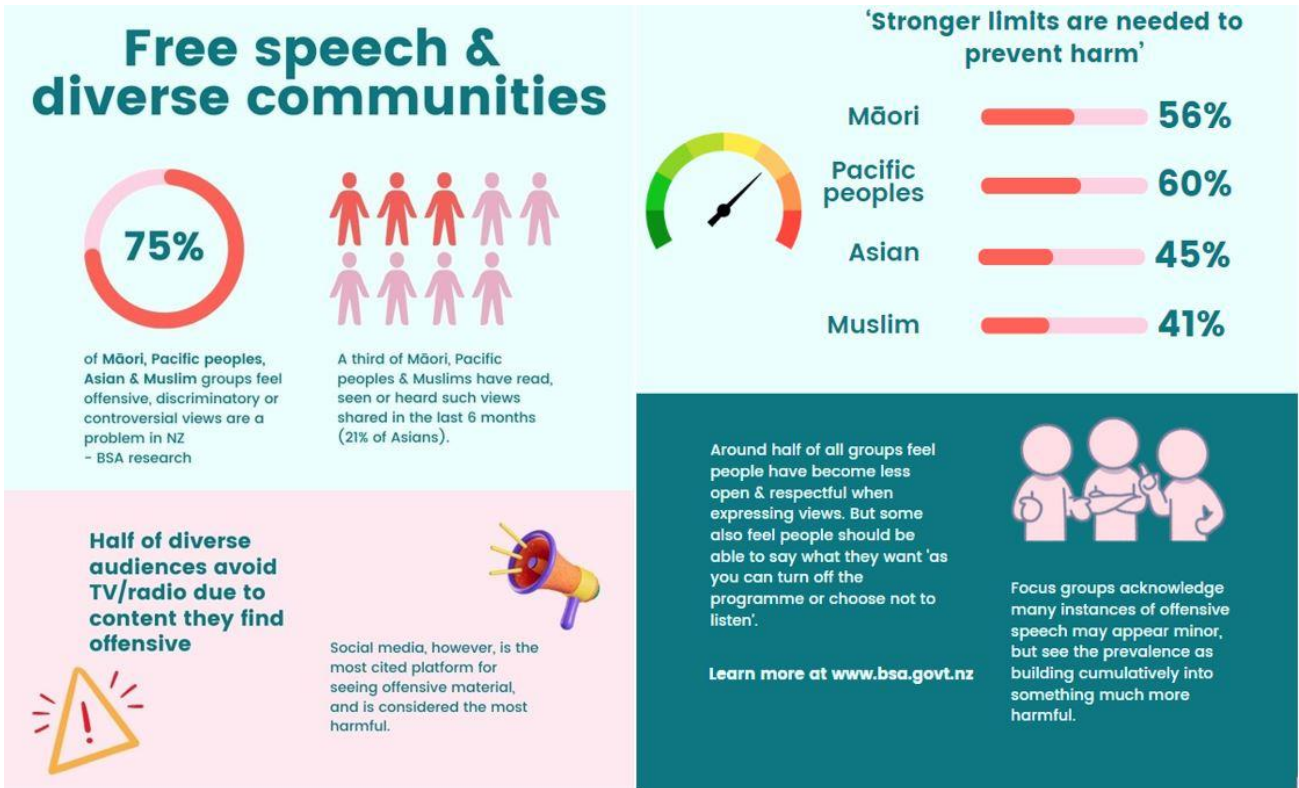
"우리의 조사는 이러한 소수민족계의 피해 경험이 어느 정도이고, 또 여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관점을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BSA 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불쾌한 콘텐츠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소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 등 콘텐츠 규제 개혁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의 누적 영향을 고려하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한다.

"지난 다른 조사에서 전반적인 미디어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조된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소수민족계의 콘텐츠 신뢰도와 활용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도 얻는다. 지난해 더 나은 대표성을 바탕으로 뉴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업계 차원에서 뉴스 미디어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해 진행한 전국 토론회는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Wood 는 말을 맺었다.

조사 보고서 전문은 BSA 웹사이트([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AK Research & Consulting 이 BSA 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는 뉴질랜드의 마오리, 퍼시픽계, 아시안 및 무슬림 공동체의 견해와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1 차적으로 소수민족계 심층조사 집단과 토론을 갖고, 이것을 토대로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 493 명을 대상으로 더 폭넓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2024 년 4 월 8 일부터 15 일까지와 5 월 2 일부터 16 일까지 진행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50% 수치에 대한 각 표본 크기의 오차 한계: 마오리 +/- 7.9%, 퍼시픽계 +/- 8.0%, 아시안 +/- 7.3%, 무슬림 +/- 10.0%

참고

방송위원회(BSA) 소개

BSA 는 뉴질랜드의 방송 기준 제도를 감독하는 독립적 정부 조직체입니다. 이 기관은 방송 기준 위반 민원을 심의하고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방송사와 협의해 방송 기준 개발 업무를 관장합니다.

SNS: X [@BSA_NZ](https://twitter.com/BSA_NZ) 또는 [LinkedIn](https://www.linkedin.com/company/bsa-nz)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참조: www.bsa.govt.nz